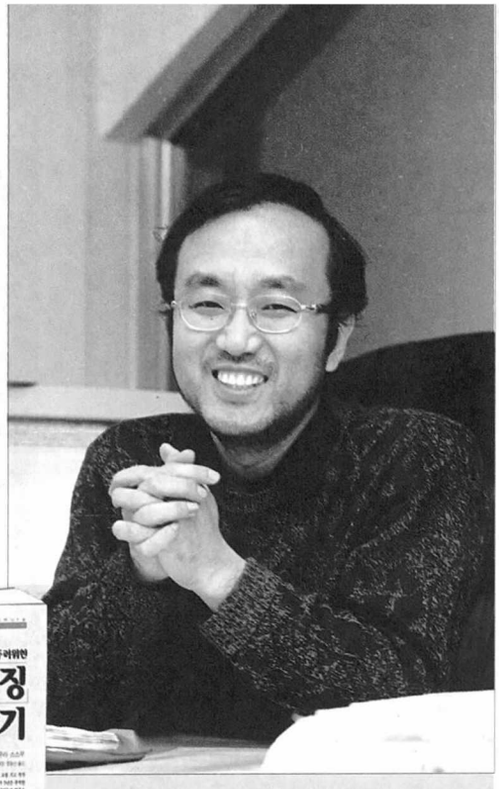
내서가의책한권

진실 드러내는 법 일러준 르포의 전범

비디오 저널리스트 안해룡씨가 뽑은 노무라 스스무의 《일본, 일본인이 두려워한 독한 조센징 이야기》



"대상 인물을 설명하되, 그 인물이 놓인 사회적 맥락까지 깊이있게 드러낸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르포기사는 많은 준비와 취재력, 사색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죠."

안해룡씨(40,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는 국내 비디오 저널리스트 세계의 '개척자'다. 그동안 주한미군, 해외입양아, 재일동포 등 진지한 주제를 다룬 비디오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작, 발표해왔다. 그런 그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일본, 일본인이 두려워한 독한 조센징 이야기》(노무라 스스무, 강혜정 외, 일요신문사)다.

"재일동포의 세계를 관찰한 한 일본인의 르포기사를 모은 책입니다. 지은이는 슬롯머신 왕 한창우, 귀화한 가수 니키시라, 재일동포 권투선수와 축구선수, 야키니쿠(불고기), 민족교육 문제, 재미교포 등 다양한 한국인의 삶을 편견없이 조명했죠."

이 책은 1994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월간 《뷰즈》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이다. 일본에서 출간됐을 때 논픽션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오야소이치 논픽션상〉과 〈고단샤 논픽션상〉을 받기도 했다.

"대상 인물을 설명하되, 그 인물이 놓인 사회적 맥락까지 깊이있게 드러낸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슬롯머신 왕을 취재하면서, 슬롯머신에 왜 재일동포가 많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슬롯머신 산업의 구조는 무엇인지 설명하는 식입니다. 감동을 주는 르포기사는 많은 준비와 취재력, 사색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죠."

지은이는 이 책 한권을 쓰기 위해 5년 동안 관련분야를 취재했으며 취재 대상 한 명과 일주일 이상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 짧은 시간 취재해 '감상기' 수준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르포기사와 비교해볼 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 안씨의 말이다. 안씨는 주변 사람들, 특히 기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해왔다.

"논픽션 책이 출간되지 않는 국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돌베개) 같은 책은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의 활동은 비디오라는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는 이 책의 정신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 세상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꿈꾸는 다큐멘터리의 진경이다. – 김정은 기자

'어느 공원의 하루' 중에서

나무의자도 새싹이 돋을 것 같아요.

어느 공원의 하루
조미자 원작·그림 / 강주경 글
춘천에 있는 작은 공원의 담담한 하루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느껴 보는 그림책

아동책 편집자 모집
아동출판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편집 ·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2월 8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마루벌은 어린이 창작그림책에 관심 있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메일주소 : myungh-lee@marubol.co.kr

마루벌
도 서 출 판 마 루 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 전화 701-2390 / 팩스 701-2395
http://www.marubol.co.kr